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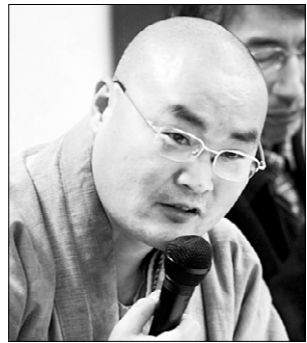
이웃종교 RELIGION

“홀로코스트 탐욕에서 비롯된 것”

종교인네트워크 토론회서 증명 스님 주장

홀로코스트(Holocaust)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는 고유명사다. 수백만 유대인들의 죽음을 연상시켰던 홀로코스트가 이제 유대인이 건국한 이스라엘에 의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가 2월 5일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사태를 종교적으로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단체가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으로 각 종교계 대표자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는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임지현 교수(한양대 서양사)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기억은 희

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희생자의 고통을 건국의 도구로 삼아 민족주의를 강화한 역사적 과정을 짚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라 정의했다. 임 교수는 “이스라엘이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나치의 학살이 유대인을 비롯해 집시, 공산주의자, 슬라브인, 성소수자들에게도 자행됐지만 오로지 유대인들만 희생자인 것처럼 나치 희생을 전유했다”며 “현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항변·반격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회)는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정당방위’라고 발언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서구 중심주의적 성공에 예측된 식민화된 자의식의 발로”라며 비판했다.



가톨릭 토론회자 박준영 연구원(우리신학연구소)은 “희생자가 집단적 희생자의식을 키우는 것은 결국 가해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홀로코스트 너머의 신화는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논리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측 토론회자로 나온 증명 스님(화계사 사회국장·사진)은 “불교적 관점에서 홀로코스트는 ‘무아(無我)’에 반하는 ‘아(我)’, 즉 나 이외의 모든 것을 타자화시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은은 기자

다윈 탄생 200주년 진화·창조론 논쟁 벌어져 한국인 62.2% 진화론 믿어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이 2월 12일 탄생 200주년을 맞았다. 1859년 <종의 기원>을 통해 생물은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다고 밝힌 그의 주장은 종교적인 반감속에서도 급속히 보급돼 생물학은 물론 사회 전반을 뒤흔든 대 사건이었다. 이번 가운데 다윈 탄생 200주년을 맞아 미국과 영국 양국간 진화·창조론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져 눈길을 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2월 9일, ‘미국과 영국 양국 국민 다수가 기독교인이지만 다윈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보도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의 63%는 인간이 현재 모습 그대로 존재해왔다고 믿거나, 절대자의 뜻에 따라 현재의 형태로 발전해왔다는 ‘창조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창조론자들은 “교실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창조론의 변종인 ‘지적 설계론(지적인 존재가 자연을 창조했다는 이론으로 창조론의 변형된 형태)’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34개주가 진화론 교육을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다윈의 사상은 흠뻑받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다윈의 고향 슈루즈버리에서는 다윈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다윈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겁다. 영국에서 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이유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충돌하지 않는 영국식 종교 문화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방송 채널이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설문한 결과 62.2%는 진화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6%로 미국보다 낮고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론을 불신하는 응답자들은 ‘과학적 불충분’(41.3%),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아서’(39.2%)라고 응답했다. 이은은 기자

“여성불자 힘으로 성폭력 근절해요”

18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개소

불교여성개발원 산하(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이 성폭력 여성 피해자 상담 활동에 나선다.



문화 및 역량강화 △법법을 실천하는 여성인권 지원활동 △불교계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단순한 상담의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와 의식 변화운동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상담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전화와 면접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성폭력 전문상담원 등 여성 불자들에게 대한 전문 훈련 등도 진행한다. 김영란 소장은 “피해자, 성범죄자에게 12년간 폭력상담을 해왔던 상담소로도 완벽히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불교심리상담에 대한 연

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아동·청소년·여성 성폭력 상담을 비롯한 불교계 내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상담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 불자의 힘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고 여성 불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2월 23-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법회관에서 ‘성폭력 성 상담 자원 상담소 양성교육’을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한다. 한국사회의 성문화, 불교와 섹슈얼리티, 집단 상담,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와 기법 등을 주제로 강

의할 예정. 성폭력 상담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자녀의 성교육 등에 관심 있는 부모 등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이어 3월 16-27일에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및 교육을 위한 성폭력전문 상담원 교육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64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종료 후 여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이 주어진다. 또한 교육 종료 후 이 상담소를 통한 성폭력 상담 및 교육 활동에 참여 가능하다. 한편 2월 1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3시 상담소 개소식과 함께 상담소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행사를 진행한다. (02-722-2101 이상연 기자)

어르신 일자리 창출 복지관들 나서

공공참여·복지 등 다양한 활동 가능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는 기업내 구조조정과 실업률 증가를 가져왔고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올해 초부터 고용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마련이 누구보다 힘든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고개 산하 각 복지관들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인, 031-919-8677)은 2월 18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 및 접수했다. 모집된 어르신들은 3월 2일-9월 30일 7개월 동안 △공공참여형(거리환경 개선사업, 교통질서 계도 사업 등) △복지형(독거노인 돌봄 사업) △시장형(전통찜집)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원, 054-633-6415)은 장애인의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월 18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20명을 모집했다. 모집된 이들은 2009년 3-9월 7개월간 복지형 건강도우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해두, 043-423-2323)은 2월 10일

‘2009년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400여 명과 사업자등등이 패있는 20여개의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해 구인·구직 연결의 장을 마련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 02-571-2988)은 2월 28일까지 일자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만 6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발된 어르신들은 도서관 관리, 물리치료 보조, 환경미화 등을 수행한다. 주 3회 1일 3시간 근무로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복지관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욕구에 비해 갈수록 수 있는 근무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노인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보장을 위해 한 국 노인일자리개발원 지원으로 소일 거리 연계를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 063-563-0009)은 2월 27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다. 접수는 고창군 각 읍·면사무소 및 고창군노인복지회관 1층에서 받

으며 면접을 거쳐 25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어르신들은 4월-7월 10개월간 △교육형(교육기관 파견형의 활동 등) △공익형(공공도서관 및 도서관 사서보조) △복지형(소외계층 및 노인가정 방문 등)사업에 참여하며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은은 기자

정월대보름 “한해 행복 기원”

교계산하 복지관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무사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2월 9일 1·3세대 통합 대보름 민속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민속놀이를 통해 세대 간 화합으로 풍성한 정월대보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어르신 200명과 학생시설관리 봉사자 15명 등이 참석해, 척사대회와 제기차기, 투호놀이, 부럼 나눔 등 민속놀이를 진행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행정안전부 간부부회

(이병재 회장)와 함께 지역사회 저소득장애인 및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세시 풍속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 풍물동아리 어르신들의 지신밧기를 시작으로 소원문 달기, 제기 만들기, 전통놀이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은은 기자

“대원불교대학이 대원불교문화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신입생 모집안내 (2년 4학기 과정 / 주·야간반)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모집기간, 모집학과, 입학자격, 강의시간, 수업료, 장학혜택, 특전, 상담 및 문의) and Content (2009학년도 전학기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2009년 2월 10일(월) ~ 2009년 3월 4일(수), 모집학과: 불교인문학과정 I, 불교문화학과, 불교명상상담심리학과, 대학원: 불교인문학과정 II (심화과정), 입학자격: 재가불자 (일반인, 직장인), 대학원: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수업료: 대 학 / 한 학기당 30만원, 대학원 / 한 학기당 30만원 *카드결제 가능 *교재비 별도, 장학혜택: 성적우수 장학, 근로 장학 외, 특전: 대원불교사상강좌 등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 개설하는 국내외 명사 초청 강좌 무료 청강, 상담 및 문의 (원서교부):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 3층 ☎ 02-707-1072

■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

-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있는 모든 자들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존중하며, 인간의 정신과 추구하는 가치를 고양하고 동시에 그 구현 과정과 방법을 탐구하는 바탕이라는 점에서 불교 정신과 사상은 그 자체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 위에서 출발하여,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인류, 복지, 생태, 환경 등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의 획득과 심화과정을 교육하고자 한다. 교과과정은 특성에 입각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각기 별도 분리된 개별 분야로 취급하기보다 상관·상호관계를 살펴나가는 통합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불교의 이해 I, II, III, IV
●전공필수: 불교와 사회철학 I, II, 현대사회와 불교사상, 불교의 인문사회사상, 불교와 사회생물학, 불교와 현대철학, 현대철학의 문제의식 I, II
인류유신의 정화인 불교문화의 이해를 위하여 불교의 원리와 관련 사상 및 역사관을 교육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관계와 문화예술 측면을 중시하는 이론과 경험을 통하여 세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과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맞게 불교문화 영역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불교의 이해 I, II, III, IV
●전공필수: 민족문화 속의 불교문화, 근본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사상, 불교의식과 현대음악, 동서불교문화교류사,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문화콘텐츠의 이해
불교교리와 수행법을 포함한, 상담의 제반이론과 기법을 통섭하고 불교를 통해서 상담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상담을 통하여 부처님법을 실현하여 다양한 명상방법으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명상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불교에 명상과 상담을 접목시켜 가능한 한 이상적인 교육방법에 접근시키고자 한다. 명상과 상담 양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천위주 교과과정으로 교육한다.
●교양필수: 불교의 이해 I, II, III, IV
●전공필수: 마음챙김과 명상 I, II, MBSR이론과 실제, 자명상 I, II,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정신분석이론과 이상심리학, 호혜명상심화과정
불교의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보다 깊은 상관관계와 상통하는 원리들을 연구, 교육하고, 역사와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제반 학문이 추구하는 풍요롭고 수준 높은 인간생활의 달성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현대 지식인을 창출하고자 한다. 상호 관계 및 상통하는 원리 파악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탐구, 연구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불교의 이해 I, II, III, IV
●전공필수: 자아초월과 뇌과학 I, II, 현대철학의 문제의식 I, II,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명상상담과 심리치료, 불교예술과 심리치료,